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⑭ 혼밥과 혼차(茶)

홀로 적적히 웃다

법정 스님은 나보다 먼저 운전을 배우셨다. 산중에서 장 보러 가시거나 먼 바람을 쐬려면 운전하는 것이 편하셨기 때문이었다.

어느 가을날인가는 나를 송광사에서 광주버스터미널까지 스님의 소형 승용차로 태워주셨다. 클래식 음악카페인 '베토벤'에 학생들 학비를 전해주러 가시는 길인 듯도 싶었다. 학비를 '베토벤' 주인에게 맡겨 놓으면 학생들이 찾아갔다. 학생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스님의 배려였다. 요즘은 장학금이나 희사금을 내놓고 촌극을 벌이는 일이 많다. 돈의 액수를 아라비아숫자로 크게 쓴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들이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스님들인 경우 더 민망하다. 신도들에게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정작 가사를 입은 분들이 상을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날 스님께서는 광주버스터미널을 가는 동안에 CD를 한 장 뽑으시더니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를 들려주셨다. 혼자 듣기에 좋은 피아노 연주곡이었다. 승용차는 광주 부근의 어느



일러스트 · 정윤경

주유소에서 멈추었다. 스님께서는 아예 '디셈버' CD를 나에게 선물하시면서 암자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스님 특유의 탁월한 비유였다. 수행자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나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승용차를 움직이고자 기름을 넣듯 수행자도 수행하고자 밥을 먹지 않은가. 혀를 위한 식탐은 수행자의 식사법이 아닐 터. 혼자 밥 먹는 것을 은어로 '혼밥'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면 '혼밥'의 원조는 암자에 독거하는 스님의 무덤덤한 식사가 아닐까. 차도 마찬가지다. 수행자들은 차도 혼자 마시곤 한다. 그럴 때의 차는 '혼차(茶)'이리라. 법정 스님은 혼자 마시는 차의 '적적한 맛'이 최고의 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스님은 가끔 다산 정약용의 독소(獨笑) 즉 '홀로 웃다'라는 시를 애송하셨다.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자식 많은 집은 배고픔이 있으며/ 높은 벼슬아치는 반드시 어리석고/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펼 길 없다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지극한 도는 쇠퇴하기 마련이며/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푼수이다
보름달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댄다/ 세상일이란 모두 이런 거지/ 나 홀로 웃는 까닭 아는 이 없을걸.

젊은이들의 은어지만 이왕에 혼밥과 혼차란 말이 있으니 이 시의 제목을 '혼소(笑)'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싶다.

조계종 연간 예산 800억원대 첫 진입

총본산 성역화 · 승려복지 등 특별회계 증가폭 커
일반회계 전년대비 4.6%증가… 종무원 임금 동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총 예산이 827억82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사상 첫 800억원대에 진입했다. 총본산성역화와 승려복지 등 특별회계가 늘어난 것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불기2562(2018)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69억5800만원 △특별회계 558억2450만원이다.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4.6%, 특별회계는 114억5253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안서 눈에 띄는 것은 중앙분담금이다. 올해 예산이 56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2%가 늘었다. 이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구본사와 말사에 대한 변화된 등급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등급으로 적용하면 이보다 증가폭은 늘어나지만 교구본사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봉정암이 특별분담금 사찰서 해제되면서 특별분담금은 5억 원 감소했다. 문화재관람료는 1억 원 줄어든 51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가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직영분담금은 직영사찰 결산액의 오름세 따라 5억3000만원 증액한 91억6700만원으로 정해졌다.

개정된 분담금 납부 적용
중앙분담금 29.2% 늘어
목적사업 위한 계획 수립
새 집행부 출범 대비해

김용구 기획차장은 "중앙분담금은 변화된 등급표로 인해 2~300% 이상 증가된 사찰들이 부담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꾸준히 논의했다"며 "결산액은 높지만 선방을 운영하거나 대중 복지에 힘쓰는 사찰들의 사정을 감안하는 등 객관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안은 제35대 집행부 출범에 대비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종무계획에 맞춰 수립했다. 종정기관은 총무원장선거 종료와 원로회의 회의 개최 감소에 따라 9742만원 감액한 2억7120만원으로 편성했다. 총무부는 인건비 동결과 자연 상승분, 교역직 복지비용 확대 등을 반영해 3억3090만원 증액한 25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무부는 11억3443만원이 증액됐지만 대부분 타회계 전출금과 예비비로 활용된다. 이외에 사회부는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해체와 화쟁위원회의 백년대계본부 편입 등에 따라 2억9360만원 감소한 19억1530만원, 문화부는 안국선원의 희사금 중단과 전통문화사진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6910만원 감액한 8억6490만원, 포교원은 사업예산 축소 지적이 잇달아 4309만원 증액한 27억472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본산성역화 37억5590만원 △승려복지 25억7840만원 △본지점 20억6909만원 △신도시시설건립(국고포함) 19억9260만원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대폭 늘었다. 총본산성역화와 승려복지는 사업진행 속도에 따른 적립액이 늘어난 것이며, 본지점은 한국문화연수원에 한옥체험관을 비롯한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건립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총본산성역화를 비롯해 종단 목적사업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예정이어서 중앙종무기관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재논의되나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1일 개회

종정감사 · 예산안 승인 외
사면 개정안 다시 다뤄야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가 11월 1일 개회하는 가운데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이번 종회 관심사로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종회서 함결 스님 외 26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칙 삽입을 통해 멸빈자를 1회에 한해 사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시 고민 끝에 내린 멸빈 징계를 부칙으로 제한해 사면한다는 게 맞지 않는데다 종정 스님의 교시만으로 종헌을 개정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반면에 정치적 상황에 의한 멸빈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안건을 이월해 다시 토론하기로 했지만 3월 이후 종회가 열리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재차 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이번 종회서는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는 원로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석과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 원로의원으로는 월정사 원행 스님, 송광사 현호 스님, 봉선사 밀운 스님이 추천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심호계위원 · 법규위원 · 소청심사위원 ·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의 인사안도 다루며, 제8기 법계위원 위촉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의사일정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세간에 불거진 범계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계의혹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눈에 띈다. 선광 스님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용주사 은처자 의혹과 환속한 前초심호계위원 성폭행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광 스님은 "조사기관인 호법부가 있지만 의혹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입법기구에서 나서는 걸 제안한 것"이라며 "떨어진 불교계의 사회적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전법사 제도 시행한다

시행령 공포… "전법 역량 강화"

종단 전법 ·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전법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종무회의에서 제정 · 공포된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졸업하는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부터 적용되는 전법사 제도는 승가대학 과정에서 4년 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해 전법 · 포교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시행령에는 전법사 제도의 역할과 지원 자격, 선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3.0이상의 평점을 받고, 사찰 수련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전법활동이 있는 학인에 한해 2급 전법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서류전형과 4급 승가고시, 교육위원회 심의 후 2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에게는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스님 중 3급 승가고시 응시자에 한해 선발 자격이 주어진다.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1, 2급 전법사에게는 장학승 선발에 대한특전도 부여된다.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비구 · 비구니계를 받고 말사 주지로 임명될 때까지 설법 등 전법 · 교화를 할 기회가 없다"면서 "전법사 제도를 통해 스님들이 전법 · 교화의 발심 계기를 삼고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은 개정된 종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과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도 공포했다. 개정령은 시행 중인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출가지도법사의 정의와 자격 · 역할을 명시해 행자 교육 중 이뤄지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방장 후보 선출 '또 무산'

10월 26일 산중총회 성원미달로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0월 26일 설법전서 차기 통도사 방장 후보 추천을 위해 산중총회를 개최했으나 구성원 473명 중 200명만이 참석했다. 성원을 위해 예정된 오후 2시를 넘겨 2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성원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날 노천문도회는 지난 산중총회보다 많은 1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문도회 절반가량은 불참했다.

노천문도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문 스님이 방장 후보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셔서 성파 스님을 추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그럼에도 산중총회가 무산된 건 본사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문자를 보내고 본말사를 돌며 참석을 간청드렸으나 성원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래도 3월보다는 늘어난 상황이라 다음 산중총회 때 성원되도록 다시 애쓰겠다"면서 "성원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며 참회한다. 방장 공석 1년 이내에 새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총림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중은 산중총회 대신 간담회를 열고, 동안거 해제에 맞춰 내년 3월 초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
108군법당 찾아
평화와 희망을 수놓다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고
108염주 만들어가는 108평화순례단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용사들에게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정에는 행복을, 이웃에는 나눔을,
사회에는 소통을, 국가에는 안정을,
한반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교신행단체입니다.



108평화순례단이 찾아 갈 108군법당

▣ 육군
국방부군종실(국방부) 계룡호국사(계룡대) 통일호국사(기무사) 호국의왕사(의무사) 화랑호국사(육사) 호국자운사(교육사) 호국대성사(군수사)
호국금련사(보급단) 호국비승사(항작사) 호국충정사(수방사) 호국사자사(특전사) 호국흑표사(13공수) 호국남성사(종행교) 호국학림사(학군교)
충성호국사(삼사) 호국무각사(보병학교) 호국충국사(부사관학교) 호국연무사(육군훈련소) 호국법련사(종군교) 호국용봉사(과학단) 호국무극사(의사일사)
호국법용사(1군사) 호국무열사(2작사) 호국선봉사(3군사) 호국충의사(수도군단) 호국일승사(1군단) 호국쌍룡사(2군단) 호국봉암사(3군단)
호국금강사(5군단) 호국불이사(6군단) 호국상승사(7군단) 호국충용사(8군단) 호국원광사(5군지사) 호국연호사(수기사) 호국자혜원(26여단)
호국천진사(1사단) 호국의선사(2사단) 쌍호정사(2사단17연대) 호국삼불사(3사단) 광복통일사(5사단) 호국청원사(6사단) 호국육칠사(6사단7연대)
호국백암사(7사단) 호국광정사(8사단) 호국백마사(9사단) 호국화랑사(11사단) 호국율지사(12사단 호국천불사(15사단) 호국연주사(17사단)
호국독도사(20사단) 호국충국사(60여단) 호국도솔사(21사단) 호국운학사(22사단) 호국용해사(23사단) 호국비룡사(25사단) 호국일월사(26사단)
호국대성사(27사단) 호국광명사(28사단) 호국불광사(30사단) 호국쌍룡사(92여단) 호국관음사(31사단) 호국대원사(32사단) 호국충경사(35사단)
백호정사(36사단) 호국충용사(37사단) 호국안국사(39사단) 호국심련사(50사단) 호국달마사(51사단) 호국광명사(52사단) 호국자운사(53사단)
호국봉화사(55사단) 호국백운사(56사단) 호국광명사(66사단)

▣ 해군
호국관조사(정보사) 호국해운사(작전사) 호국해안사(진기사) 호국충국사(교육사) 진해호국사(해사) 호국쌍룡사(해병대사) 호국해룡사(해병1사단)
호국청룡사(해병2사단) 호국흑룡사(해병6여단) 호국해항사(해군6전단) 호국승룡사(해병교육단) 호국해동사(1함대) 호국해봉사(2함대)
호국해광사(3함대) 호국해원사(인방사) 호국해봉사(해병9여단) 호국해관사(제주기지) 연평호국사(연평부대) 호국통해사(재경대대)

▣ 공군
성무호국사(공사) 충국성불사(교육사) 호국천룡사(작전사) 성무일승사(군수사) 호국금강사(1전비) 기룡호국사(3훈비) 호국보국사(5전비)
호국미타사(8전비) 호국화성사(10전비) 호국정각사(15전비) 호국비룡사(16전비) 호국영축사(17전비) 호국한송사(18전비) 호국함룡사(19전비)
호국통천사(20전비) 보리해법당(항공안전단)

선묵혜자 스님과 108군법당 찾아 평화의 불 봉안하는
108평화순례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08(상계동) 3층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108평화순례단 회원가입문의 ☎ (02)936-5936, (02)900-0193